

사료 값 인상 최대한 억제키로 합의

- 생산자단체 · 사료협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사료원료 세제혜택 받도록 대정부건의 등 공동노력키로

축산업 불황과 사료값 인상 대책 수립을 위한 축산관련단체 회장단과 한국사료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지난 1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김건태 본회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 회장단 5명과 정일영 사료협회장, 김영옥 천후제일사료 사장 등 한국사료협회 회장단 2명은 최근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이례적인 모임을 갖고 최근 사료산업 동향에 대의 논의했다.

이날 사료협회는 12월초 기준 옥수수 가격이 중국산의 경우 톤당 C&F(운임을 포함한 가격)기준 지난 5월 118달러에서 152달러(미국산 164달러)로 28.8%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소맥 158달러, 대두박 330달러, 채종박 198달러로 각각 28.5%, 42.9%, 45.6% 올라 사료값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사료협회는 이 같은 사료곡물 시세 오름세에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마저 상승해 현재보다 15%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 등 축산물생산자단체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격 인상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하나, 2004년도 경기 전망시 국내 경기의 상승 요인이 뚜렷하지 않아 육류소비량 보합 또는 감소 추세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원/달러 환율 전망이 올해보다도 낮은 1,15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의 국제 곡물값 인상에 따른 국내 배합사료 인상 요인에 다소의 상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료값의 인상을 최소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건태 본회 회장(축단협 회장)은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은 물류비 및 경영비 절감 등 사료회사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자체 흡수 해결하는 방향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료협회는 사료값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관리, 운송비용 등 물류비 절감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생산자단체와 사료협회는 공동으로 사료원료의 무관세 통관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5/105로 상향조정해 줄 것 등을 위해 대정부건의 등 공동 노력을 펼쳐 사료값 인상분을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제를 5/100 적용시 세경감 효과는 337억2천8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요 축산생산자 단체와 사료협회 회장단 모임을 분기별 회의로 정례화해 곡물가 급변 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발빠른 대처를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정책종합자금 시중은행 취급 개방 정부에 건의키로

- 축단협 제5차 축단협 대표자회의에서 결정
- 과로사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마련 계획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2월 17일 오전 7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김건태 협의회장 등 협의회 소속 25개 단체 대표들과 김달중 축산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3년 제5차 축단협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대표들은 농림부에 최근 사료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료업체가 사료값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사료원료의 무관세 통관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향조정 등 세제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정부의 사료회사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저리자금으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호근 축산물 위생과장은 정부의 사료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경영 개선자금 지원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료업체가 사료값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농협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정부정책종합자금 취급을 일반 시중은행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형석 계육협회장은 농협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보다 담보 등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달중 축산국장은 농가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과로사로 숨진 직원 등 자녀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마련키로 하고 축산단체와 축산신문이 공동으로 기금마련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들은 농림부 김달중 축산국장으로부터 DDA/FTA 최근 동향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축산물브랜드전 통합 개최(안) ▲축산국 폐지 반대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양돈수급안정위, 2004년 사업 심의·의결

양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가 28억 5000만원의 수급안정자금에 대한 200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양돈수급위는 지난 12월 5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 3차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출부위 유통, 가공지원, 소비홍보, 농가계도에 역점을 둔 내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에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올해 사업계획을 일부 바꿔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요리방법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연내에 개발·운영키로 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16억8420만원) ▲수출부위 유통가공지원 (5억4158만원)▲양돈농가 생산안정 계도활동 강화(6,040만원) ▲조사연구사업(7,000만원)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돼지고기 소비홍보, 소비자 동향 및 행태분석 선행돼야

양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2003년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주)한국표준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이용한 사업모델 개발 및 보급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3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400여명의 20~40대 여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부위가 외국에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부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중 대부분이 수출부위를 평소에 먹지 않았던 습관과 요리방법을 잘 몰라서 구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습관 변화 동기 부여와 수출부위를 이용한 요리개발 보급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과성이거나 전시적인 성격이 다분한 소비촉진 홍보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조사 분석결과 소비자들이 삼겹살과 목살을 구입하는 이유로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아, 수출부위가 가격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대답한 것은 돼지고기 부위별에 대해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한편 TV광고나 보도자료를 접한 후 돼지고기 소비 또는 구매에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이 63.2%로 나와, 그동안 TV홍보 등이 소비촉진

에 크게 기여했음을 입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식생활문화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소비성향을 비교 분석했는데 일본은 여러가지 요리방법을 개발해 돼지고기를 균형적으로 소비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왜곡된 구이문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서 돼지콜레라 발생

경남 김해에서 사육중인 돼지에서 콜레라가 발생,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과 살처분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신모(53)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1천600마리 가운데 450마리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되는 것으로 신고됨에 따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 콜레라가 의심되는 돼지를 포함해 모두 5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10월 현재 93.3%

- 항체양성률(비육돈) 80% 미만 시·군 6곳

10월 현재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이 9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2003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한 전국의 각 시·도별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에 의하면 10월 현재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93.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비육돈 92.7%, 번식돈 94.4%, 자돈 88.8%로 나타나 여전히 번식돈에 대한 항체 양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78.8%), 남양주시(57.1%), 충북 증평군(65.0%), 전북 완주군(78.0%), 장수군(63.3%), 전남 영암군(73.0%) 등이 비육돈 항체양성률 80% 미만으로 조사돼 이 지역 양돈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 78농가 1,174두, 10월 86농가 1,568두 등 총 164농가 2,742두를 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이 지속적으로 0%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부분육등급표시 대상에 돼지고기 추가

-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부분육등급표시 대상에 돼지고기가 추가되고 지정받은 부분육등급표시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도 부분육 등급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지난 12월 1일 공고한 축산물등부분육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HACCP 적용 작업장 중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부분육등급표시를 희망할 경우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 후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 시행식육가공장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동 지정된 식육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도 부분육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판정소는 “그동안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요령을 2002. 2. 20일 제정 이후 도매시장 4개소에서 쇠고기부분육 상장경매와 가공업체 21개소를 지정·시행하여 축산물의 규격 통일화와 부분육 거래를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에 부분육등급표시 대상 축종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로 확대해 돼지고기도 부분육에 성별(암,

거세) 및 등급표시로 부분육 유통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콩 조류독감 발생 - 경제적 큰 파장

지난 12월 15일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H5N1)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닭, 오리의 국내 소비 위축, 수출중단 등 경제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충북 음성과 충남 천안에 이어 전남과 경북권에서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 발생해 6명의 감염자가 사망한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H5N1)인 만큼 인체 위해성 여부가 우려되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일단 예방 및 방역 조치를 벌이면서 인체 전염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최종 확인하기까지는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울들어서만 93억원 달하는 닭고기 등 가금류 수출길이 이미 막혔으며, 국제 규정상 최후 발생 보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금수조치가 풀리는 만큼 양계농가들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2005년부터 사료공장 HACCP 의무시행

오는 2005년부터는 배합사료공장에서도 HACCP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농림부

는 사료공장 HACCP 기준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료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사료내 농약·동물약품 허용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DDA에 대비한 대책으로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 수준인 10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수돼지 '유전자 칩' 첫 개발

우수한 품종의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cDNA) 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화제다. 진주산업대학교 동물소재공학과 김철욱 교수 연구팀은 지난 3년간 경남도 지원으로 돼지유전자의 검색 및 기능분석용 유전자 칩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

김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유전자 칩은 근육, 지방특이 유전자만을 집적해 만든 것으로 돼지의 육질을 진단하고 특이유전자를 검색하는데 효과적이므로 품종별 육질평가와 고품질 돼지개량에 이용될 전망이다.

축산분뇨 액비 이용 및 활성화 사례 세미나 개최

축산분뇨 액비 이용 및 활성화 사례 세미나가 11월 28(금)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제2교육관에서 축산농가와 축분뇨 관련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축산분뇨자원화 정책과 액비 이용 문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강연

과 액비이용 쌀 브랜드화 사례 등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단미사료협, 유동준회장 재추대



유동준 단미사료협 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동준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또한 단미사료협회는 이날 유동준

회장을 비롯 현부회장인 유창열 한국사료항미양행 대표와 장지식 흥창산업 대표이사도 연임됐다.

폐자원사료화 리사이클링과 안전성 제고방안 심포지엄

한국폐자원사료화학회(회장 유동준)는 12월 12일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와 공동으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 “폐자원사료화 리사이클링과 안전성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식물성폐자원 사료화 정책방향 ▲남은음식물 건조사료의 이용성 및 금후방향 ▲남은음식물 습식사료의 이용성 및 금후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종돈장청정화사업 현실에 맞게 지원 주장

종돈업계가 현행 농업종합자금 사업지침으로는 종돈청정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종돈장의 현실에 맞게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해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 브랜드아큐멘 공동 축산물브랜드 전문경영자과정(제1기) 입학안내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과 브랜드아큐멘이 공동으로 축산물브랜드 전문경영자과정(제1기)을 개설한다.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의 육성과 축산물브랜드 마케팅의 전략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마련되는 이번 전문경영자과정은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 교수진과 실무경영진이 직접 참여하여 이론과 현실을 아우르는 현장감 넘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기간은 2004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14주과정이며,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에서 매주 수요일 19시에 교육된다. 지원자격은

축산농가, 축산담당 공무원, 농·축협 유통 실무자, 영농조합법인 유통 실무자, 육·유가공업체 유통 실무자, 축산물 도·소매업 종사자, 식육관련 개인사업자 등이며,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교학과(Tel : 450-3312)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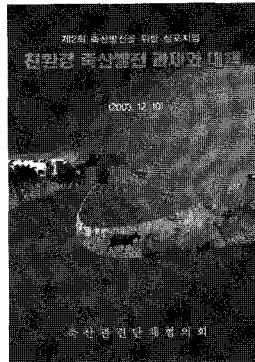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12일(월)부터 2월 6일(금)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교학과(Tel: 450-3312)
- 구비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한백용)는 현행 농업종합자금 지침 가운데 금융기관의 총부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전업규모 이상의 양돈장 대부분이 정책자금 등 금융기관 부채가 3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모든 종돈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종돈업경영인회는 신규법인설립이나 청정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이뤄질 경우 최초 종돈입식 후 3년이 경과해야 재무제표상 흑자시현이 가능함에도 종합자금 심사 평가에서 신설사업장이 3년간 적자업체로 평가받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축단협, '친환경 축산발전 과제와 대책' 책자 발행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0월 10일 마사회에서 개최한 제2회 축산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의 주제였던 '친환경 축산발전 과제와 대책'에 관한 책자를 12월 10일 발행했다.

이 책에는 친환경 축산 정책방향, DDA협상과 축산직불제 관련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과제, 친환경축산 기술체계 확립 방향에 관한 내용과 주제토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돈**